

현장필름 폭력 절취한 관계자를 즉각 구속하라.

濟大新聞社 記者일동

중국기행

고성준
사범대교수·정치학

제주에서 비행기를 타서 2시간이내 중국 제1의 도시인 상해에 닿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중국, 한반도 면적의 44배나 되는 광활한 국토, 한민족 인구의 15배가 넘는 엄청난 인구, 그리고 그 장대한 유적들의 나라. 그러나 그간 우리와는 이념과 체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너무나 먼 거리에 놓여 있던 나라이며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곳이 바로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 선조가 발생했고 활개를 쳤으며 옛 우리나라를 일으켰던 곳이다. 우리의 옛일이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 곳이 바로 중국인 것이다.

거대한 땅에서 우리는 결코 무언할 수 없는 중국이 한때는 족의장막이라 불리며 외국인들의 접근을 막아왔으나, 78년부터 동소평시대가 전개되면서 세계를 향해 문을 열었고 우리에게도 결코 멀지 않은 나라일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체육교류와 경제교류로 시작된 우리와 중국의 관계는 88올림픽을 계기로 역사, 문화, 학문적 교류의 단계로 접어들었고 마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한 인간적 인건의 교류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또한, 동북3성(만주)에 살고 있는 동포들과의 교류도 이제는 이산가족의 재회라는 차원을 넘어 설정도가 되고 있다.

필자는 평화문제연구소가 주

□ 개혁-개방속의 중국인과 우리동포

우리 말·음식·풍속 그대로 보존
근면·뛰어난 농사기술로 경제생활 윤택

관하는 중국방문단의 일원으로 지난 11월 5일부터 13일까지 5천년의 고도이며,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과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망국의 한과 광복을 위해 피어던 항일투쟁을 벌였던 만주의 태평과 길림을 살피고 불꽃을 가졌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필자는 거대한 중국이 패색과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로 진입하고자,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며, 21세기라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그 큰 몸집이 가꿀려는 소리를 직접 들어 볼 수 있었다.

中國民航(CAAC)의 보잉 767을 타고 홍콩의 카이탁 국제공항을 떠난지 3시간만에 베이징공항에 도착했다. 제중국항공편의 정사를 갖고있는 북경공항은 많은 외국비행기로 붐비는 김포나 홍콩의 공항과는 달리 일본의 JAL과 서독의 Lufthansa가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온 비행기가 착륙해 있는 비교적 한산한 편이었다. 그러나 북경공항 청사내부는 내년도 아시아안개임을 대비해 공사가 한창이었다.

북경 시내로 들어오면서 눈에 띄는 것은 북경이 자전거의 도시라는 점이다. 곳곳에 있는 자전거(자전거보관소)에 세워둔 많은 자전거와 자전거의 행렬로 거리의 도로가 채워지고 있었다. 북경의 인구가 1천 1백만인데, 자전거가 8백만대라는 말을 들으니 보통 한집에 자전거가 3~4대인 셈이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도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에 도착해 마지 신고식

이라도 하듯 댕댕 돌러본 곳이 우리 TV 등에서 낯익은天安門廣場이었다. 舊皇城의 남쪽 끝부분으로, 명(明)의 영락년간에 지어졌으며 그 당시에는 承天門이라고 했으나 나중에 청(淸)에 개축되면서 개명된 天安門은 문루 위에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장이 장식되어 있었고 문루의 5개의 문 중앙에는毛主席의 상이 걸려 있었다. 天安門廣場에는 아편전쟁이후 전개된 중국혁명의 부조가 새겨진 높이 38m의 人民英雄紀念碑가 서있고, 그 남쪽에毛主席紀念堂이 있다. 보다 동쪽에는北京原人에서부터 아편전쟁까지의 중국역사를 담고 있는歷史博物館과 그 이후의 역사 특히 중국공산당의 역사를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는革命博物館이 있다. 서쪽에 있는인민대표대회가 열리는人民大會堂은中華人民共和國의 상징이었다. 필자는 비교적 사람들이 적은 오후 늦게, 약4만평방m의 면적으로 세계최대규모의 야구장은 이 광장에 서서 추수모두가 가슴아팠던 지난 6·4天安門사태를 회상해 보았고 이번 방문에서 중국사회주의 40년의 공과를 해라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했다.

北京의 거리마다 넘실대는 자전거행렬과 택시로 사용되는 이른바 오토바이와 그리고 5백년에 걸쳐 明, 淸의 황실이 있던紫禁城에 농촌에서 추수를 끝내고 관광 나온 수많은 내국인(매일 1백여만명의 내국인이 북경에 관광하러 들어오고, 나간다고 할)들의 표정을 보

면서 중국이 생각했던것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북경거리로 들어온 많은 고층아파트들과 새로 짓고 있는 빌딩들, 그리고 넓게 새로 뚫린 도로들이 개방화의 길을 걷고있는 중국을 보여주고 있는 듯싶었다. 天安門에는「중화인민공화국 만세, 세계인민 대단결 만세」라는 구호가 있지만, 그곳 이외의 어디에서도「붉은 구호」를 찾아볼수가 없었다. 대신「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귀가하십시오」라는 탈정치적 구호가 곳곳에 붙여져 있었다. 아침 일찍 텔레비전에서 중국학생과 중국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회화프로그램이었고 그것이 끝나자 우리의 텔레비전에서도 같이 에어로빅체조시간이었다. 다만 北京大學를 방문했을 때 느꼈던 침체적 분위기와 국제뉴스, 특히 동구의 개혁에 대한 언론의 보도시간 등에서 비로소 내가 지금 공산당이 영도하는 국가에 와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는 정도다.

광활한 중국대륙에서도 우리 민족에게는 민주주의라고 부르는東北3성이 친근감 있는 지역이다. 고조선과 고구려 그리고 발해가 아직도 숨쉬고 있다고 할일독립운동의 역사기념관이 있으며 백두산의 성스러운 자태가 태고의 신비와 함께 버티고 있을뿐 아니라 1백70여년의 우리 동포들이 우리의 말과 음식, 우리의 풍속을 그대로 보존한 채 살아오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필자는吉林省의 제일의 도시인 長春과吉林省을 방문하여 우리 동포들을 만

나볼 수 있었다. 필자가 찾았던 곳은吉林省에서 버스로 1시간 가량의 거리에 위치한 永吉縣阿拉底村이란 우리동포들이 모여사는 농촌을 둘러보았다. 1931년 일제의 침략을 피해 고향을 떠나 이곳에 3세대가 정착을 하게된것이 이마을의시초이며 그후 점차 우리동포들이 이주해와 지금은 마을전체가 5백30세대인데 그중 5백세대가 우리 동포였고 나머지는 漢族 그리고滿州族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직전선거에 의해 선출된 村長은 우리동포가 맡고 있었다. 지난79년 토지를 매개체로 나누어 주기 시작한 후 이땅에서 수확하는 농작물중 3분의1만「국가임무」로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유시장에 내다팔 수 있게 되면서부터 근면하고 농사기술이 뛰어난 우리동포들의 경제생활은 눈에 띄게 향상됐다고 한다. 수입이 늘어 저축을 연萬元(1백80만원)하는 동포도 있고 농산물을 싣어나르는 화물차를 직접 경영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마을에는 우리말로 수업을 하는 유치원·소학교(국민학교)·중학교가 있었다. 유치원과 소학교를 방문하고 난후 교사들로부터 한국으로부터 학생들 교유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들의 제공이 아쉽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촌장집에서 정성들여 만들어 제공해 준 음식에는 개장국과 개고기국침이 기본이어서 개고기 음식을 동북3성에서는 우리 동포들이 남느소 할 것이 좋아하는 것을 실감하기도 했다.延邊의 경우와는 달리 長春, 吉林, 하



△합계 적은 중국방문단 사정하하
△고성준교수가 장춘에 있는「文明村」앞에서 우리동포들과

얼빈 등의 우리 동포들은 대부분 고향이 남한(특히 경상도)이어서 그런지 한국에 대한 관심은 상당하였다. 吉林省을 떠나 날 밤 吉林省의 국가기관과 대학 등에 재직하는 우리 동포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들은 낙후된 길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간절한 뜻을 전하기도 했다.

長春을 방문했을 때, 중국에서 北京大學 다음의 중점대학으로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吉林省大學의 朝鮮問題研究所長인 張世和교수와「북한과 통일문제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에서 장교수는「나라마다 정황이 다르니까 중국의 체도를 가지고 북한을 분석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최근 북한은 평양·개성·원산 등지에 농업시장과 자유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서해안에 남포근처의 섬을 중국의 海南島와 같이「경제특구」를 설치하려 하는 것과 같은 개혁과 개방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고 북한의 개혁과 개방정책에 대한 진전과 기대를 피력하기도 했다. 吉林省大學은 동북아연구센터와 미곡연구센터 등을 설치하여 지역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었으며 2백10만 권의 장서를 도서관에 보유하고 있었고, 중국의 여러대학중에서 단점집구조에 관한 연구는 단연 앞서 있었으며 정교수 1백여명중 우리 동포 교수가 23명으로 자연과학계열에 대부분 관계하고 있었다. 78년 개혁이 실시된 이래 吉林省大學은 대외교류와 협력에 나서서 지금 현재 서방 9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외국대학의 교수가 객원 내지는 명예교수로 40여명, 특강교수로 30여명이 다녀왔거나 현재 와있었다. 서방대학에 대한 교수연수활동도 활발하여 전체교원 1천 6백50명중 4백50여명이 다녀왔거나 진행중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강원대, 중앙대, 경북대, 국민대 등에서 관계교수를 이 방문을 하고 교류프로그램을 활발하게 협의중에 있었다.

이런의 중국방문에서 중국사회주의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는가를 확인하게 되었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는 분야에서의 비능률과 비효율의 문제, 서비스업의 활기와 친절에서 그리고 각종 상품의 진열에서 물질적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는 개혁의 성과를 느끼게 됐다. 결국 중국은 무역국적을 겪게 되겠지만 이보다도 보다 더 나아가는 내일을 원하는 중국인민을 위해서는 그동안 실시해온 개혁과 개방화를 더욱더 밀고 나갈수 밖에 없을 것이며 그에 따른 정치개혁의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향후 중국의 과제가 아닌가 보여졌다.

체육관리부 독립의意義

체육활성화가 주목적

“대표팀 선발 육성해야”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에 의해서 학교에는 체육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기구 및 조직을 갖추게끔 되어 있다. 이에 본교도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1982년에「제주대학교 체육관리 진흥위원회」(위원장: 총장)를 두어 본교 교직원 및 학생들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교내·외의 모든 체육활동을 조정·발진시키게 되어 있다. 그러나 체육관리 진흥위원회가 구성된지 9년이 넘도록 본 목적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있던 체육관리부(부장: 이창준교수·체육과)를 올해 4월 10일자로 독립하여 체육진흥활동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체육관리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어떤 성격을 지닌 기구였으며 체육관리부는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자.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

생처장을 부위원장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산하에 체육관리부라는 부서를 두어 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체육관리부는 첫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수행해 볼 때, 학교체육진흥의 연구, 계획, 교내·외의 체육행사 계획안의 작성 및, 대외경기에 참가할 선수선발 및 지도 등의 기능을 수행해 볼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각종목별 부서를 두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체육관리부에는 각 부서로 육상부·핸드볼부·축구부·배구부·사격부·배드민턴부 등을 두고 있지만, 이는 대외경기에 참가할 전문 선수선발 및 지도 등의 기능에만 역점을 두어 편성된 것이다. 그러나 체육관리부 수행사항에서 보는 바와같이 체육관리부가 해야 할 일들은 전문 선수육성에 한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 구성원들의 체육활동

을 진작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업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 학생들이 대학에서 하는 체육활동이라고는 체육시간과 학교체제를 통한 경기활동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1주일에 두시간 있는 체육시간이라고 해봐도 체계적인 학습과정이 없이 중·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배구·축구·육상·핸드볼 등을 하는 수준이지 그나마도 시험을 치르기 위한 연습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체육시간 역시 국채과목 폐지후에 밀려 현재는 1학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3·4학년은 고작하여 아스팔트위에서 족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체제가 되고 해봐도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경기로써 일반학생들의 체육활동기회가 드물어 학생대중에게서 외면당하고 있다.

물론 체육관리부가 강의내용에까지 간섭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관리부가 동등성있게 관여함으로써 효율적인 학생들의 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보며, 현재까지 학생의 주체로 일하는 체제에 대해 지적을 한다면 체육관리부가 함께 행사를 주관함으로써 1년에 한번 열리는 체전때에 알차고 실속있게 열려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설립된지 9년이 되도록 체육관리부가 활발한 활동을 하지는 못했다는 예상과 부딪히게 됐다. 체육관리부가 제대로 구상돼 있다는 데에 있다. 이제까지 체육관리 진흥위원회의 예산은 기성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학생에서 위임을 담당하고 있고 그 위원회 밑에 체육관리부가 있어 체육관리부가 독자적으로 실질적 업무와 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는 것이다. 즉 체육관리부하에 위원회가 존재해 체육관리부의 활동 및 업무에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다행히도 체육관리부가 독립하게 되어 독자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체육관리부 독립에 대해 관리부 부장인 이창준교수는「대학 전체의 효율적인 체육활동을 진작시키려고 하는 것이니 만큼 빈약한 예산은 총장실에서 지원을 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학생들은 체육활동이 전문 선수훈련의 일이라는 생각에서 탈피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제까지는 체육관리부가 전문 선수들을 위한 체육을 중심으로 활동해왔으나 앞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체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의 선수가 아니라 체육관리를 위한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도 지급하게 된다고 한다. 체육관리부가 이런 활동을 원활히 수행해 나가는 데는 자체내에서의 노력과 효율적인 운영이 큰 변수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전제대인의 관심과 활발한 참여하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현대의 체육활동은 건강증진을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흥분기능의 역할로서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각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자신들이 속해있는 단체를 대표하여 국가의 성장정도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체육관리부의 능동적 활동을 통해 본교 홍보를 위한 역할 역시 기대를 받을 만 할 것이다. 【조선휘기자】

대자보초점

어휘사용에 문제 많아

지난11월 1일부터 15일까지 학내에 부착된 12여개의 대자보들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학생운동에 관한 내용이 그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중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 명의로 소개된「상반기 학생운동 평가와 11월 국공투쟁의 방향」이라는 제목의 대자보 내용은 상반기 학생운동 및 조국통일운동에 대한 평가로 그 골격을 이루고 있다.

이 대자보에서 상정하고 있는 상반기 학생운동의 성과는 첫째, 전대협을 사수해내고 국민들에게「자주·민주·통일」사상을 확산시킨 것이며 둘째, 미·노정권의 분단영국악음에 타격을 가해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학생운동의 오류로는 과학적 인식의 부재로 인한 미·노의 식민주의 지배전략을 모에 대한 결사항전 자세의 부족,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통한 공동투쟁의 미약과 민주화 투쟁의 계기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을 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투쟁 방향은 전체 대중의 단결된 힘을 동원해 반미조국통일운동을 통한 반공·반북이데올로기의 무력화와 노동계 정권의 퇴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모총학생회부하 명의의 대자보에서는「90년 학생운동은 노동투쟁을 통한 민중연대투쟁의 구실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90년대 변혁운동의 과제는 민중투쟁의 반파괴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진전선을 강화하고 각계 민중전선은 독자적인 조직전선으로 역량을 축적해야

하며, 동시에 각 시기 정세에 부합하는 연대투쟁을 조직화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외 주목할 만한 대자보로는 농촌운동에 대한 수업개방조치와 중문동부지역을 관광단지로 하는 무분별한 개발계획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담은 것을 들 수 있다. 이중 수업개방의 부당성을 고발한 대자보에서는 현재 국내의 농촌운동을 수입은 과거 국내 부족분에 대한 제한된 수입의 단계를 걸쳐 점차 정책적이고 구조적인 수업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꼬집은 후, 농업이 계속 보호육성될 수 있고 농민의 생존권 이해와 권리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오랜기간동안 무농교수퇴진 투쟁을 벌여온 상업교육과가 수업정상화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대자보도 우리의 눈을 끌었다.

그동안 나름대로의 내용을 담았다는 대자보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부착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대자보들이 많은 학우들에게서 공감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복되는 듯한 내용으로 인해 학우들로부터「그게 그거 아니냐?」라는 반응을 받기 시작한 것은 요즘 일이 아니다.

대자보가 자신들의 입장이거나 의견들을 확실히 피력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닌만큼 좀 더 호소력있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용 전개에 있어 조리있고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어휘를 적절한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고, 완전한 문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鄭】

아르바이트생 모집

동서식품과 함께 열거물을 뜻있게 보내십시오.

■모집내역

1. 용모자격: 전국 4년제대학에 재학중인 의욕적인 남녀학생
2. 인 원: 〇〇〇명
3. 근무기간: 30일 (12월 11일부터 30일간)
4. 근무처: 거주지 관할 영업소

■제출서류

1. 이력서 1통 (반명함판 사진 첨부)
2. 재학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제출방법

1. 서류심사 및 면접
2. 희망근무지, 관할영업소에서 선착순제용

■서류제출기한 및 제출처

1. 제출기한: 1989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2. 제출처: 희망근무지 관할 영업소

- | | |
|----------------------------------|--------------------|
| ●서울중앙 (영):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0-4 | ☎(02) 336-8255-7 |
| ●서울북부 (영): 서울시 동대문구 신성동 117-12 | ☎(02) 252-2415-8 |
| ●서울남부 (영):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2동 1101-13 | ☎(02) 841-8521-2 |
| ●서울동부 (영):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2-6 | ☎(02) 567-8361-3 |
| ●서울서부 (영): 서울시 강서구 영랑동 261-1 | ☎(02) 691-1945-8 |
| ●부산 (영):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856-1 | ☎(051) 65-5727-8 |
| ●대구 (영): 경북 마산시 석전동 232-4 | ☎(0551) 55-4525 |
| ●대전 (영): 대전시 동구 신천동 292-24 | ☎(053) 756-7278 |
| ●전주 (영): 대전시 동구 용전동 14-10 | ☎(042) 625-6701-3 |
| ●광주 (영): 광주시 서구 농성동 648-2 | ☎(062) 34-7173-4 |
| ●전주 (영): 전북 전주시 팔복동 271-294-1 | ☎(0652) 74-6388 |
| ●원주 (영):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318-3 | ☎(0371) 44-6543-4 |
| ●인cheon (영): 인천시 남구 주안동 22-59 | ☎(032) 864-3101-2 |
| ●수원 (영): 경기도 수원시 세류동 544-21 | ☎(0331) 36-4505 |
| ●경주 (영): 경북 경주시 삼천동 644-10 | ☎(0561) 3-3131 |
| ●의정부 (영): 경기도 의정부시 가흥3동 688-1 | ☎(0351) 872-1221-3 |
| ●강릉 (영): 강원도 강릉시 보남동 1163 | ☎(0391) 43-5041 |
| ●제주 (영): 제주도 제주시 화북동 1994 | ☎(064) 56-2811-3 |

3. 문의처: 동서식품 (주) 마케팅부 (02) 848-8100 혹은 희망근무지 영업소.

東西食品株式會社
DONGSANG FOODS

가슴이 따뜻한 사람,
그것은 인생을 듣는다.

한잔의 커피를 마시며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

산다는 일은 어쩌면
소설보다 더 아름다운데
뜨겁게 살아온 길에는 향기가 있구나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맛을 아는 분이 선택하는 커피의 명작, 맥신

작가 김민준

맥신
Original Blend
Mocha Gold

깊고 풍부한 맛과 향
온화한 맛, 가득한 향

글 실는 차례

濟大新聞社

1000

풍부한 통찰력 이 책의 출판권은 탈 비즈니스 사회와 저
 사회의 도래이다. 드러나는 조직과 Management라는
 수업을 구사하여 정경에서 윤리에 이르는 광범한 영역
 에서 평가되고 있는 '세로로 열린'을 생생하게 묘사
 내는 데 성공하였다. 풍부한 통찰력이 넘치는 역
 運筆(운필)

P. F. DRUCKER 著 金龍園 訳
*** 讀者의 독점판권계약에 의해 발행 ***
 * 국산 32권 5,500원 * 전곡서점에서 판매

연구소 점검(1)-학생생활연구소

조사연구부 유명무실

신입생 실태조사결과 연계안대

「채용설명회」「교양특강」도 형식에 치우쳐

우리대학에는 7개의 법전연구소와 5개의 비법전연구소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중 학생생활연구소(소장:徐庚林·법학, 이하 학생연구소)는 타연구소와는 달리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학생들은 설립목적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학생들이 자기정체와 주위환경을 파악하여 능동적인 생활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건전한 생활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1968년 8월 「학생지도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후 82년 3월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면서 「학생생활연구소」로 개편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학생연구소는 효과적인 업무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전문적 활동에 관해 조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의 설치지도부(부장:朴泰秀), 조사연구부(부장:姜東植), 학업지도부(부장:金斗和), 관리실이 있다.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상담지도부: 개인 및 집단 상담과 지도, 심리검사 및 해석, 각종 특강 개최에 대한 사항 담당.

②조사연구부: 각종 학생생활 조사 분석, 심리 측정도구의 개발, 카운슬러 교육, 학업지도연구 및 출판, 각종 세미나 개최.

③학업지도부: 취업자료 수집 및 제공, 취업 및 진학지도, 해외유학 안내.

④관리실: 사업계획 수립,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계획, 주요부서의 업무는 위와 같지만 사실 매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책자발간, 1회성의 취업정보특강, 심리검사의 실시 등만이 연례행사로 치루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학생연구소의 다양한 실질적인 기능수행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하며 그를 위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중심으로 글을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학생연구소 안고있는 문제는 각종 행사에 대한 홍보와 미흡하고 학생들의 무관심이 있다. 그 작은 예로 작년 10월부터 계속 실시되고 있는 「동료 카운슬러 훈련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5주간 실시된 제4기훈련에 41명이 참가했고, 그 이전에는 3기 총 25명을 수료시킨 적이 있어 이를 거듭할수록 참여학생이 늘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학과생의 1%수준이고 이러한 훈련이 있는지도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 실시한지 1년밖에 안되어 많은 이용이나 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회의가 들기도 하지만 수료자 대부분이 이 훈련을 「유익하고 좋았다」라고 평가하는 바에야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학생들의 대외부와 구별하기 힘든 홍보용 대외부 및 장난을 부리는 것은 이상한 대외부에 무감각해져 눈에 띄는 색다른 제목의 대외부 마련 없이 지나치는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학생들

을 위해 존재하는 학생연구소라면 팔막한 내용일지언정 구색 갖춘 설명회정도는 훈련실시 전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둘째, 「채용정보설명회」나 「교양특강」이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부서가 이 잡색채용설명회와 시합출제경향들을 설명하는 「채용정보설명회」의 경우, 참가기업이 차별채용의 대명사로 손꼽히는 국내유수의 재벌기업뿐이다. 서류전형에서부터 지방대생들을 불합격시키거나, 아예 지방대에는 「채용추천의뢰서」를 보내지 않는 이들의 자리를 위해 예산을 낭비하니 비중이 높아진 면접에 대비한 「면접가이드」 특강이나 대내 출신의 중앙지역대학졸업자만을 선발하는 도내기업과 우리대학 출신자 채용을 위한 연계활동을 벌이는 편이 낫다.

한편, 「대학생과 자기발견」, 「대학생과 자기성장」이라는 주제로 매년 실시되는 「교양특강」도 그 주제가 풍기는 위양스만이나 진부한 내용을 뿐이다.

신입생들이 실시된 특강을 듣고 난 후, 이런 특강을 아예 듣지 않는다는 사범대 2학년 J양은 「신입생은 대학에 갓 들어와서 이념, 공부방법, 인간관계, 가치관 정립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피상적이고 도덕적 같은 얘기를 듣는 오히려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오히려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오히려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없는 교수들이 신입생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셋째, 취업정보부의 필요성 여부이다. 그동안 학생연구소에서 수행하던 취업·부직·유학 업무가 올해부터 학생처 장학담당관실에서 맡고있어 실제로 취업정보부는 실용없고 유명무실한 부서로 전락하고 말았다. 올해초에 발간된 「학생생활연구」 제11집에는 「濟州大學校卒業生の就業問題와 그 對策」이라는 자료가 있어 최근 5년간의 취업현황과 종사직종, 전공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볼수 있어 반갑기는 했지만 업무가 중복된 지금은 오히려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업무수행에도 지장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업무중복 이외에도 82년부터 발간된 「취업안내」지나 그 이후 명칭이 변경된 「진로정보」지는 거의 같은 내용이다가 구체적인 정보가 수록되어 있지 않아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고 그나마 올해는 11월말 현재까지도 발간소식이 없다.

넷째, 상담지도부와 조사연구

부의 경우, 연구지나 실태분석자료 또는 교육(훈련)효과분석자료 등의 발간이 필요하다. 그것은 학생들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물론 앞으로 학생지도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발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발간된 책자를 널리 배포함으로써 홍보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바람직한 결과로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상에 업무수행과정상 파생된 학생연구소의 문제들을 살펴 보았다. 이제 학생연구소 「부직이나 취업만을 앞세우는 것」이라는 기존인식을 깨어 학생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학생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어 「학생생활」을 더욱 충실한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생들 역시 4년 이상을 몸담는 학교에서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것들—각종 연구소, 정보자료, 심지어 사람들까지—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자식적인 시각과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겠다. [김지애 기자]

독자의소리

濟大新報는 제대인이 다함께 만드는 신문입니다. 본지기사, 혹은 학내 제반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고자 하니 원고지 5매이내로 많은 투고 바랍니다.

없는 것은 없는가

올바른 비판으로 한해를 정리하자

어느덧 89년의 해도 누엿누엿 저가고 있다. 새해 아침의 계획은 그 해에 있어 커다란 중요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해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짓느냐가 더욱더 값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가 한해를 마무리짓는 시기이다.

아무리 올바르게 실천했다 해도 올바른 평가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지만 올바르게 실천하지 못했다 해도 올바르게 그것을 평가하고 고쳐 나간다면 한해를 뜻있게 산 것이 된다.

결과로 나타나는 획득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상에서 잊어 버린 여러가지 일들에 대해 평가하고 결과물에 대해 스스로의 비판과 인정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해의 마무리를 자신이 얻어 낸 것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태도를 갖는다.

우리는 대학인으로서 일년동안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행동했는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신입생들은 자신이 과연 대학 초년생으로서 지나야 할 일을 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았는지의식이 있다면 모든 사실들을 자기 돌봄처럼 아끼게 되리라 생각된다.

앞에서 거론했지만 우리 대학처럼 4계절 아름다운 곳은 없다. 우리 캠퍼스이다. 자기방을 꾸미듯이, 캠퍼스를 더욱 멋지게 가꾸는 것이 어떨까?

총학생회장은 공약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대학가는 최근에 불어닥친 선거열풍으로 초겨울의 추위를 무색케하고 있다. 과거 총학생회에 걸렸던 기대는 얼마만큼 성취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번 총선거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고 하겠다. 실제로는 마음대로 투표장에 들어서서 일련의 절차를 끝내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를 하는 순간만큼은 자신을 확인한다. 이 한표로 인해 내년 90학년도에는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고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리라 기대하는 가슴이 벅차다. 내가 아니 모든 아라학우가 거는 기대란 진전이 없는 한해가 아니라 확실한 진보를 향하여 총학생회장만이 선회하는 것이 아니다.

우선 자신이 내건 공약사항을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총학생회장이라는 자리에 설 수 있을은 무탈 할 나위없다. 「실천 한국인」이 바로 총학생회장이어야 한다. 그는 일단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전체를 이끌어 나갈 결단이 필요하며 결코 불의에 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기 자신은 자신이 가장 잘 알아야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점에 강하고 어떤점에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대중들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인격자로서, 그리고 야심가로서 우리의 총학생회장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제 겨울을 보내고 새로운 봄을 맞이할 우리 학우들에게 가슴 벅찬 미래를 심어 줄 수 있는 총학생회장이 되어주었으면 하고 바란다.

문현정<영교·1>

오상철<영문·1>

휴지통 아이디어 너무 좋아

이런 선거홍보물 많이 개발해야

강의실로 가기 위해 교문에 서 걸터앉아 보던 보이지 않던 시설물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휴지통이었는데, 총학생회장선거의 일환으로 캠퍼스에서 설치해 놓은 쓰레기통이 바로 그것이다.

많은 돈을 들여 버젓하게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 아니라, 썩은 강물을 이용한 영성찬 모습에 아이디어와 그 정신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통이 많지 않은 우리대학의 현실에 비추어 일종의 정까지도 느끼게 한다.

특히 그 어느 곳보다 쓰레기통이 많은 우리대학의 현실에 비추어 일종의 정까지도 느끼게 한다. 특히 그 어느 곳보다 쓰레기통이 많은 우리대학의 현실에 비추어 일종의 정까지도 느끼게 한다.

우리는 홍보를 함에 있어 홍보자료에만 급급한 나머지 홍보

지미나<국교·2>

有大漫評



◇ 환상의 섬 CHEJU

한편, 조선사람의 심정으로 조선사람의 생활과 연애를 그려낸다는 작가의 말처럼 이 책은 우리에게 변혁운동 속에서 사랑과 혁명의 문제를 자신들의 삶 속에 투영시키고자 하는 젊은 세대에게 큰 감동을 줄 것이다. <홍익·1천원>

개신간

「翰林里」

—「제주의 마을」시리즈 ⑩—
이 책은 제주의 마을 시리즈 열번째로 북제주도의 핵심마을인 한림리 편이다.

한림리의 자연·사회적 배경·언어·민속·민요·신앙·전설과 일화, 인물들을 비롯 고한이 이야기, 생애이야기 등이 이 고장촌신들에 의해 소개되었다.

한편, 권말에 부록으로 이시돌목장의 「일 신부」 제주도 출신 산간촌에 따른 문체학과 낙농(P·I 맥그리치), 한림관내 학교의 교과들이 수록되어 있다. <민서·2천원>

모래위에 세운 도시

—오성찬著

「신선들의 땅」이란 만큼 유달리 아름다운 그리고 유별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본도는 1960년대 초 관광붐이 일어났던 때 무기 지역이 돼 버렸다. 신제주에 위성도시가 들어

서고 주류 통지에 대한 위 판과 단자들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섬사람들이 가꾸어 놓은 굴밭들과 고리시대 이후 전래돼 오던 목장들이 팔고, 파는 아귀다들 속에 잠은 짐승과 새 떼어 내듯 하는 행위들이 되풀이 되어갔다.

이 책은 이런 본도의 변질과 정 속에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대학생들의 고민을 이야기로 엮은 것이다. 한편, 본교를 배경으로 본교생들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실재감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우리의 싸움에 승리를 위한 격려를 보내고 있다. <지성문화사·3천원>

「新生哲學」

—윤노빈지음

윤노빈교수는 독재정권이 휘둘러온 시절, 나라의 시대적과제와 부단, 중앙을 이겨내지 못하고 83년 결국은 「도하나」의 반쪽 「로」 우리 길을 떠나면서 한쪽 철학같이 이 책을 남겼다.

철학적 자기성찰의 고백인 이 책은 굳은 혀를 생동케하며 주위에 종횡무진 민족의 참백한 입술에 생기를 불어주기 위해

사랑을 찾기 위하여

—박주관著

이 책은 현재 「5월」 동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저자의 네 번째 시집이다.

현상에 대한 직설보다는 은유·역설·우회로 표현으로 충상성을 띤 시들로 묶였던 종전 저자의 시집들에 비해 이번 시집은 민족의 자유화와 통일, 민주주의의 건설이라는 과제와 자신이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시작 변모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학민사·2천원>

「청춘기」

—한설야著

KAPF·윌복작가 등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한설야의 세번째 작품이다. 이 작품은 1937년 7월20일부터 11월29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던 것으로 소시민적 삶의 세계를 본격적으로 다룬다고 있다는 점에서 카프해산 이전의 작품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장학생선발공모

가천과학기술재단은 국가의 과학기술을 촉진하여 국가발전에 기여코자 기초과학 육성 또는 첨단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단체나 연구자의 지원등 과학기술진흥을 목적으로, 분석사 신도리코(회장 우상기)에서 출연한 재원으로 1984년 5월 7일 과학기술 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설립된 재단입니다.

이러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장학생을 선발코자 공모하오니 탐구의 욕에 불타는 과학기술연구자의 많은 응모 있으시기 바랍니다.

—공모요강—

1. 응모자격

- 1)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으로 이공계 전공자
- 2)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학비조달이 곤란한자
- 3) 장차 국가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기여 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자

2. 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인원

●등록금(납입통지서의 금액) 전액, 약간명

3. 응모요령

- 1) 제출서류
 - (1) 대학원장 추천서 1부
 - (2) 이력서 1부
 - (3) 최종학교 전학 성적증명서(대학성적증명서 포함) 1부
 - (4)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 (5) 자기소개서 1부
 - (6) 호주 또는 세대주의 재산에 과세증명 1부
- 2) 제출기한: 1989년 12월 9일 (금) (우편접수)
- 3) 제출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2가 277-22 (주) 신도리코 내 (재) 가천과학기술재단 (Tel. 460-1146)

4. 기 타

- 선발자에 한하여 추후 개별 통보함

1989년 11월 27일

(재)가천과학기술재단

이사장 오 선 환

韓國銀行은 創立 第40週年을 기념하고자 다음과 같이 懸賞論文을 모집합니다.

주제

- 금융의 자유화와 국제화에 대응한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
- 한국경제의 성장과 형평의 조화방안
- 경제의 개방화 진전에 대비한 외환정책방향
-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한 산업구조조정 방안
- 개방화시대의 농촌경제구조 개선방안
-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한 금융제도개편 방안
-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한 금융기관의 경영전략
- 지역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 경제환경의 변화와 중앙은행의 역할과 기능

1. 응모자격: 전국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2. 응모마감: 1990. 4. 10(화)

3. 집필요령

- 논문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10매 내외의 요약문 첨부)
- 학술논문의 형식에 따르되 정책적 시사점을 포함
- 공통응모도 가능하나 동일인의 복수 응모와 동일논문의 타기관에의 이중 응모는 허용되지 않음

4. 입선작 발표: 1990. 6. 8 (금)

- 개별통지 및 경제신문(한국, 매일, 서울, 중앙, 내외)에 공고

5. 상 금

- 최우수작(1인): 총재상패, 상금 300만원
- 우수작(2인): 총재상패, 상금 각 150만원
- 장려상(3-5인): 총재상패, 상금 각 50만원

6. 제출 및 문의처

우편번호 100-794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가 110번지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실 (759-4285)

7. 기 타

- 논문 제출시 연차서를 명기하고 재학증명서 1통 첨부
- 접수된 논문은 일체 반환치 않으며 입선작의 저작권은 당행에 귀속됨

韓國銀行

아르바이트

학비를 벌자. 경험을 벌자.

넓게, 더 넓게 경험하며

더 큰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젊은 지성인에게

지금, 알찬 아르바이트의 기회가 왔다.

시간은 Free —, 수익은 Best —

스스로 학비를 벌 수 있음은 물론

대학시절동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진취적인 대학인에게는 짧은 기간동안

충분한 경비를 마련할 수 있는 최상의 찬스!

자! 이제부터 시작하자.

위대한 우리의 자력의 겨울을.

15년 카드기업 피카소카드

연하장 주문 아르바이트

- 15일 활동으로 2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보장됩니다.
- 본사에서 기업체 거래원을 제공해 주며 연하장을 주문발는 업무입니다.
- 기업체 연하장주문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에게 가장 알맞아줍니다.
- 지금, 친구와 함께 시작하세요.

제조원: 피카소 카드
JUNG WOO CO.
전화문의: (02) 797-2199
797-3199

도종환 초청 강연요지

역대정권 "민족사 왜곡" 분단극복·통일지향 교육 우선돼야 참교육 투쟁 이제 시작일 뿐

역대 독재정권들은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교육을 이용해왔으며, 교과서를 통해 정통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유신때는 중 3 국어책에 유신헌법 전문이 실렸었고, 5공시절에는 민중항쟁을 깃발했던 것들을 정당화하면서 국정교과서가 '정의사화구현, 복지사회건설, 민주주의 토착화'라고 각 교과서를 통해 가르쳤다. 작년까지 사용된 국 1 국어책에는 전두환·이순재 부부의 대통령령서인 대통령령에 대한 예우를 가르치는 내용과 함께 실려있기도 했다.

6공때부터 지금 사용되는 국 2 국어책에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단원이 있다. 신문은 통해 알고 있었지만 임금님 귀가 큰 것을 부끄러워 하지 「임금님은 귀가 크셔서 백성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라는 원문도 없는 부분을 결하여 현재 대통령의 귀가 큰 것과 은연중에 연결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거나 합리화하려는 의도에 의해 교육내용이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라 할만하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정권에서 이용당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오류를 빚었다. 그 첫째가 「민족사의 왜곡」이다.

우리나라는 식민지시대를 겪고 민족의식을 해방공간의 이주했던 상황과 분단전쟁, 군부독재의 파행적인 역사교과서를 살아오면서 민족사와 민족주의가 바로 서지 못했다. 사람들은 말로는 정의와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고 하지만 억울하고 피해받고 싶었던 우리 민족의 의식속에 현실합리화라는 지배적기가 된다. 이런 역사에서 잘못된 역사관과 세계관, 교육관을 갖게되었고 결국 이런 교육관 속에서 잘못된 교육내용이 만들어진 것이다.

80년대 중반, 일제배 반민족적인 행위를 했던 문인, 예술인, 지식인들의 친일행각이 각종 자료를 통해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고 절망했다.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월의 루」의 작가 이인지는 문학사에서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 작품은 일본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를 인명과 지명만 다를 뿐 그대로 베껴온 것이다. 그는 이완용의 비서였고 후에 일본인에게 애국인사들의 동태보고를 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저 한국문학사에서 최초의 신소설을 쓴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만 가르친다.

역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의 것이다. 선대의 것이면서 동시대인과 후손들의 것이기도 하다. 민족이 어려운 시기에 처해있을 때 후손들이 다시는 선

대처럼 기회주의적이고 현실순응적, 반민족적인 행위를 하지 않게 된다.

교육의 두번째 오류로 나타난 것은 가능한 한 삶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태도이다. 예컨대 그 관점에서부터 「문학이란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전문가가 가끔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문학작품이 당대의 모습보다는 삶과 격리된 것을 그리는 것이다. 이것이 공간적 도피로써 「자연」 시간적 소재로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 시·공간적 도피가 아닌 때는 내면으로의 도피가 된다. 인간내면의 심리소설, 해체소설이 그것이다.

셋째는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후손에게 분단된 땅을 물려주는 안목이 그러기위해서는 분단극복, 통일지향적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미움보다는 사랑, 호소보다는 화해, 분열보다는 화합, 분단보다는 통일을 심어줘야 한다.

그런데, 해마다 6월이 오면 의례적으로 치뤄지는 갖가지 반공운동대회, 글짓기대회, 나라사랑행사는 교육내용이나 방법에 있어 거의 절망적이다. 국민학교어린이가 연단에 서서 「뽕어죽자」 「뽕어죽자」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면 선율과 리듬은 전무하다. 아무런 전문성, 자율성, 정치적 중립성도 주어져 있지 않음을 괴로워 한다. 아이들에게 내용없는 작게 씌어나 왜 소리치는 줄도 모르면서 우리에게 하는 교육을 시켜주는 안목이다.

넷째,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나타난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모국어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한나는 교육은 억지로 머리속에 많은 것을 집어 넣어 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거나 왜 소리치는 줄도 모르면서 우리에게 하는 교육을 시켜주는 안목이다.

우리의 수공업적인 방법—후원회비, 모금과 저들의 놀라운 조직력, 재력, 행정력—은 45억 4천만 원, 반상호 통한 홍보—의 싸움에서도 결코 우리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고 열정 또한 식지 않았다. 오히려 조직은 보강되고 더 굳건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모두의 힘이 합쳐질 때 그들은 빨리 온다. 거대한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 힘을 합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싸우는 길만이 승리하는 길이라 확신한다. 【정리: 김지애 記者】

지 못한다. 이 때에 저임금·저급가치가 가능해지고 독점자본이 축적되고,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지 못하고 개인의 무능력, 불성실 탓으로 생각하게 (과학적인 것처럼 IQ로 뒷받침해서) 잘못교육받았다고 나머지 4분의 1학생도 자기 가 다니는 대학에 대한 불만족과 일류대학에 대한 좌절감 때문에 삶의 태도가 한 패배주의적이다. 모든 것이 비인간적인 교육에서 비롯된 폐해이다.

다섯째, 선생님들 또한 수직구조를 통해 내려오는 많은 사함을 교실에 들어가 열무처럼 뿔뿔이 뿜어 낸다. 한번도 소신껏 말해보지 못했다. 근무평정제도, 교육법 등을 통해 얼마든지 불이익을 받고 처벌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속에서 매일 기계적으로 어떤 내용을든지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

10여년동안 교단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정리해 보니 「『는 꼭 할 것』 「『는 꼭 하지 말 것』 「『는 꼭 볼 것』 등의 세가지로 나누어 졌다.

단순히 지금 우리는 교장, 교사, 문교부장관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국민 모두의 교육에 대한 무지와 싸우고 있다.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가족이기와 싸우고 있다. 세상은 다 그렇다고 하는 잘못된 세계관, 현실합리화론과 싸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물리적 폭력과 태도·관습과 싸우고 있다. 학교당국과 사학재단의 무능력, 무책임과 싸우고 있다. 공안당국의 비이성적, 비교육적, 비인간적 태도와 싸우고 있다. 우리들의 싸움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싸움이다. 그리고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거리에서 백과사전과 맞서 싸우면서 정말 이기려면 이성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점 때문에 많이 괴로웠다. 그러나 끝까지 이성적·인간적·교육적으로 대처하는 쪽이 이긴다고 생각한 다. 이 싸움은 거짓과 참의 싸움이며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우리시대에 진실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기치를 우리 삼상에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수공업적인 방법—후원회비, 모금과 저들의 놀라운 조직력, 재력, 행정력—은 45억 4천만 원, 반상호 통한 홍보—의 싸움에서도 결코 우리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고 열정 또한 식지 않았다. 오히려 조직은 보강되고 더 굳건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모두의 힘이 합쳐질 때 그들은 빨리 온다. 거대한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 힘을 합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싸우는 길만이 승리하는 길이라 확신한다. 【정리: 김지애 記者】

사회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민중의성」(회장: 문혜숙·2년) 주최 두번째 노태우공인 「진보적 새우고」가 오는 12월16일 오후 6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장예자들이 기금마련을 위한 이번 공연에는 창작곡 「새」를 비롯 10여곡의 노래가 선보이게 되며, 제주전대학 교를 사운트 「새」의 찬조출연도 있을 예정이다.

양영길 同門 등 단 「문학공간」誌 통해



양영길 同門(국문 20회)이 문예회관간사 주최 「제1회 추천 신인상」 시 부문에 당선됐다.

당선작은 「열매」와 「진눈깨비」를 비롯 「눈」, 「이슬」, 「나의 이웃」 등 5편으로서 「문학공간」장간호에 실려있다.

한편, 「추천신인상」 제도는 문학공간사에서 월간 「문학공간」을 창간하면서 처음 시행한 것으로서 종래 문예지에서 신인추천제와 신인상 심사제를 겸한 독특한 신인발굴 방법이다. 문학공간사에서는 매년 1회 각 장르별로 신인발굴을 위한 문학작품 모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운슬러 훈련자 수료식 가져

학생생활연구소(소장:徐庚林·법)에서는 지난 27일 동

로카운슬러 훈련 제2차프로그램을 마친 학생(2·3기)에 대한 수료식을 가졌다.

이들은 차츰교수(상담지도부장) 지도하에 지난 6주동안 자기소개 및 면담, 가치관 명료화, 유사점과 차이점 발표, 장점과 단점 노출 등으로 이루어진 「가치관 명료화 프로그램」을 이수했는데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명란(국교·3) 김병성(국문교·2) 김은정(사영·3) 김홍순(제주농고교사) 신근명(사영·3) 양미숙(사교·3) 오경은(생물·3) 이승아(국교·3) 이영선(학생생활연구소) 정여운(교육방송국) 좌해경(국문교·2) 현승훈(국교·3).

한편, 지난 25일에는 학생생활연구소 집단상담실에서 동료 카운슬러훈련 제1차 프로그램을 마친 4기생들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에 수료한 학생들은 지난 5주간 4집단으로 나누어 카운슬러교육 1기생들의 지도하에 참가자소개, 운영표지훈련, 공감훈련, 자기노출훈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인간관계개선 프로그램」을 교육받았는데 총 34명의 학생이 수료하였다.

姜교수 퇴진 거듭 촉구

현재姜교수 「과목」他교수가 강의

지난 9월29일부터 40여일동안 계속되어오던 상업교육과姜교수퇴진투쟁이 학교당국의 잠정조치로 인해 일단락됐지만 사건의 불씨는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학교당국에서는 지난 13일 수업정상화방안으로 사법대 전제교회의 결의내용에 따라姜교수의 담당과목에 대해 대리강사를 위촉함으로써姜교수의 퇴진을 거듭 촉구하면서 수강신청기간에 청원서를 제출,姜교수과목에 대한 담당교수 변경을 요청함과 동시에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거부는 물론 물리력을 행사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라골 단신

로망스 정기연주회

「제5회 로망스 정기연주회」가 지난 19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본교 동아리 로망스가 주최한 이번 연주회에서는 2부로 나눠 진행했는데, 1부에서는 클래식 합주 「El bimbo」를 비롯 포크다블루엣, 클래식트리오, 포크트리오 등이, 2부에서는 포크다블루엣, 클래식다블루엣, 클래식 합주가 연주됐다.

「간밤 지새우고」공연

16일 문예회관서

사회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민중의성」(회장: 문혜숙·2년) 주최 두번째 노태우공인 「간밤 지새우고」가 오는 12월16일 오후 6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장예자들이 기금마련을 위한 이번 공연에는 창작곡 「새」를 비롯 10여곡의 노래가 선보이게 되며, 제주전대학 교를 사운트 「새」의 찬조출연도 있을 예정이다.

입시경쟁률 평균 3.5대1

開校이후 최고 경쟁률 기록

천8백40명 모집에 6천3백66명 지원

90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 관한 원서를 접수한 결과 8개 단과대학 52개학과(야간강좌부 포함) 총 1천8백40명 모집에 총 6천3백66명이 지원해 평균 3.5대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같은 경쟁률은 지난해 1천8백40명정원에 5천7백39명이 지원 평균 3.1대1의 경쟁률보다 높아진 것으로 종합해 승격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 기록, 이에따라 학과별 커트라인도 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제1지방법과 소속 단과대학에서 원서를 접수한 결과 경상대학(야간강좌부 포함)이 2백60명모집에 1천2백18명이 지원, 4.7대1의 최고경쟁률을 보인 것을 비롯해 인문대학이 3백10명모집에 1천12명이 지원, 3.6대1, 법정대학이 1백40명모집에 5백66명 지원 4.0대1, 사법대학이 1백10명모집에 1백87명 지원 1.7대1, 농과대학이 2백40명모집에 9백47명 지원 3.9대1, 해양과학대학이 1백60명모집에 6백9명 지원 3.8대1, 자연과학대학이 2백60명모집에 8백35명 지원 3.2대1, 공과대학이 3백60명모집

에 9백92명 지원 2.8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과는 경상대학 경영대학(야간)로 20명 정원에 1백29명이 지원 6.5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경제학과 6대1,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5.5대1, 법정대학 법학과 5.4대1의 순으로 예년보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산업체근로자 16명을 특별전형하는 야간강좌부에는 24명이 지원해 1.5대1의 경쟁

률을 보였으며, 체육학과 5개 종목 특별전형에는 15명모집에 15명이 지원해 1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돌다리의 밤 개최

보육원아 작품 전시

본교 교육봉사회 돌다리(회장:이은자·무역2)에서는 지난 25일 홍익보육원아 작품전시회 「제5회 돌다리의 밤」을 법정대 중앙당에서 가졌다.

감귤판매 캠페인 벌여

총학, 대정을 농민회와 연계

총학생회(회장:홍명환·행정4) 주최 「농민사랑·제주사랑」 감귤판매 캠페인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학생회관 1층로비에서 있었다.

이 감귤판매캠페인은 「수입 개방압력과 가공용감귤 전량수매가 이루어지지않는 현재의 상황에서, 제주농민의 현실적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자하는 실천적 방안」으로써 실시된 것인데, 대정을 농민회와 연계

해 1천49점의 감귤을 판매했다.

한편, 총학생회에서는 감귤판매를 통해 거둬들인 이익금 18만원(앞으로 수입개방에 대한 투쟁홍보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올해 감귤판매 캠페인의 오류를 극복하고 성과를 계속하여 '90년도의 수입개방까지 투쟁의 계기로 삼을것)이라고 밝혔다.

방수보수공사 착수

법정대 중앙당

부실공사로 인한 법정대 중앙당 옥상 방수작 제2차 보수공사가 지난 17일부터 착수됐다.

이번 공사는 중앙당의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당 이외에도 법정대건물에 있는 일부 불량배수시설에 대한 정비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시설과에 따르면 이번 공사에 총 2천3백95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41대 34로 청주대 꺾어

본교, '89핸드볼 종합선수권대회서

'89핸드볼 겨울콘잔치 전국종합선수권대회에 출전한 본교 핸드볼팀(감독:權純昌·국체심판)이 지난 26일 청주대를 이기고 1차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한라체육관에서 벌어진 1차리그 남자부 A조 경기에서 본

교팀을 청주대를 맞아 시종 우세한 경기를 펼친 끝에 41대34로 승리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주말경기로 내내 1월8일까지 치러지게 되는데, 출전팀 연고지를 중심으로 순회경기를 갖게 된다.

李東根교수 개인전

7일까지 세종미술관서

「李東根展」이 오는 12월1일부터 7일까지 제주세종미술관에서 열린다.

李교수(미술학과·전임강사)의 세번째 개인전인 이번 작품전에는 「한라산」, 「유채의 불꽃」 등 2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학과 학생장 선출

▲90학년도 학과 학생회장선출

＜국문문리교육과＞회장=김보선(2년) 부회장=강필재(1년)

＜영어교육과＞ 회장=강진(2년) 부회장=이우철(1년)

＜물리학과＞ 회장=김희철(2년) 부회장=김종호(1년)

＜가정관리학과＞회장=오진숙(1년) 부회장=박윤영(1년)

＜수학교육과＞회장=현수진(2년)

＜농학과＞회장=김태영(2년) 부회장=고동환(1년)

＜수산학과＞ 회장=부재호(2년) 부회장=김창남(1년)

＜수의학과＞ 회장=오원환(1년) 부회장=오남호(1년)

＜사회학과＞ 회장=강동현(2년) 부회장=현성훈(2년)

＜국어교육과＞회장=김보선(2년) 부회장=강필재(1년)

＜영어교육과＞ 회장=강진(2년) 부회장=이우철(1년)

＜물리학과＞ 회장=김희철(2년) 부회장=김종호(1년)

＜가정관리학과＞회장=오진숙(1년) 부회장=박윤영(1년)

소리너울 연주회

본교 클래식 기타학 소리너울(회장:백승삼·농학2) 주최 「제5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23일 저녁 7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있었다.

대학원의 정서함양을 위한 마련된 이번 연주회에는 현우택 지휘「Overture Op.15」를 비롯 7개부문 10여곡이 선보였다.

문학 한마당 개최

본교 문학동아리 신세대(회장:이재현·경영2) 주최 「문학한마당」이 지난 23,24일 양일간 중앙당에서 열렸다.

첫째날에는 시낭송과 세미나 「노동문학」이, 둘째날에는 초청강연 「문학에 뜻을 둔 후배에게」(연사:김수열·前 제주대학교·전교조가립해직당함), 시극 「참교육의 합성으로」 등이

J·P·C 사진전시회

「J·P·C 창립 10주년 사진전시회」가 카메라클럽(회장:현용훈·농학4) 주최로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서귀포 삼다미술·본교 여학생회관, 제주시 유정다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오순선(무역학·2)학우의 「운동회 1」를 비롯, 김은철(농학학·4)학우의 「해변의 정취」, 김태란(국문·3)학우의 「봉천동 아이들」 등 46점의 작품이 선을 보였

학내인사

11월21일 4명의 교수에 대한 인사발령이 있었다.

△玄鳳壽교수(경영학과·교수)＝경원대학원장 사무취급 결투를 명함.

△金敬吳교수(관광경영학과·부교수)＝경원대학원 교수과장 사무취급 결투를 명함.

△高富善교수(경영학과·조교수)＝경원대학원 경영학과 부임교수 사무취급결투를 명함.

△金成龍교수(체육교육과·부교수)＝체육교육과장 결투를 명함.

三星의 개발전—④ 첨단기술개발

무엇으로 21세기를 제패할 것인가?



19세기초, 당시 세계사의 무대이던 유럽 전역을 힘으로 정복하여 일세를 풍미했던 영국, 나폴레옹. 지금 21세기, 이 시대의 영웅을 꿈꾸는 또다른 나폴레옹이 출현한다면 그는 과연 힘 아닌 그 무엇으로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었을까?

“기술을 제패한 자가 세계를 제패한다—”

바로, 기술입니다.

그리고 기술이란, 단순히 전자·기계 등의 공학적인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걸친 보다 폭넓고 다양한 의미의 현대화·선진화를 뜻합니다.

4MD램 및 16MD램의 자체개발 등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도체분야 외에도, 컴퓨터·로봇·생명공학·항공·우주산업 등, 삼성의 국내외 19개 연구소 4,000여 연구원들이 펼치고 있는 첨단 미래기술— 그리고 꾸준한 기초과학기술 인력의 양성과, 매출액 5% 이상의 R&D 투자를 통해 2,000년대 기술 선진기업을 착실히 실현해 가고 있는 삼성의 첨단기술 중시 경영—

이제, 21세기 제패의 꿈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 프로 비판에 대한 一考察 <2>

"내용·형식 논쟁" 카프 자극 문예운동 방향전환 계기 마련

韓雪野 문학예술의 대중화문제 맨처음 제기

李 成 俊
국어국문학과 助敎

Ⅲ. 프로 비판의 전개 양상

신경향과 문학의 핵심은 기존 질서에 대한 '특수적인 거부'였다. 따라서 문학창작에 있어서 소재의 새로운 차원을 크게 넘어서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경향은 카프가 결성되고 난 후에도 제법 지속되었다. 뚜렷한 기관지도 없이 주기판지 격인 「文藝運動」을 발간하는 등 초보적인 활동만을 했다. 이런 침체되고 초보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기운이 감돌 때, '내용·형식 논쟁'이 일어 나 카프를 자극한다. 이 '내용·형식 논쟁'은 우연한 계기에 이루어져 방향전환론 형성의 내적 원인으로 작용한다. 朴英熙와 金基鎭의 이 논쟁은 결국 아나키스트와 불세비키 사이의 논쟁으로 비화되면서 第一次 方向轉換의 원인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다.

1) 方向轉換論爭

카프 방향전환의 구체적 내용은 문학예술에 있어 당파성의 확립과 문학예술의 특수성에 대한 문제제기 할 수 있다. 방향전환의 내적 계기를 마련한 '내용·형식 논쟁'은 김기진이 「문예월령-산문적 월령」(조선지광, 1926. 12)에서 박영희의 소설 「철야」와 「지옥순례」를 비판함으로써 시작된다.

김기진은 박영희의 두 소설 「철야」「지옥순례」를 소

설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올바른 선전문학이 될 수 없다고 주장, "소설이란 한 개의 건축이다. 기둥도 없고 서까래도 없이, 붉은지붕만 입혀서 놓은 건축이 있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박영희는 "소설로써 완전한 건물을 만든다는 것은 아직은 프로문예에서는 시기가 이른 空論"이라고 하여, 중요한 것은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작가가 계급의식을 초월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역시 문예 비평가도 계급을 초월할 수 없다"고 하면서 "君(김기진)의 그 '실감'은 사회적 표준도 없이 누구의 작품이고 묘사가 부족해서 실감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을 보면 확실히 군의 논지는 예술지상주의적 초계급적 개인주의"라고 반박하였다.

박영희의 이 지적처럼 김기진은 박영희 작품이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을 놓치고 있는 것에 착안하면서도 그 원인을 단순히 묘사가 실감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반대로 박영희는 김기진의 논지를 예술지상주의적, 초계급적, 개인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문학예술의 계급성, 더 나아가 문학예술에 있어서 당파성을 주장했다. 이 주장에서 박영희는 데인의 「당파성과 당문학」

을 인용하지만, 당파성이 문학예술의 특수성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지적을 바로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결과 박영희는 김기진이 지닌 초계급적, 무당파적 이론에 비판을 가하고자 했던 정당한 의도에 불구하고 문예운동의 당파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적용으로 오류를 낳게 된다. 이 오류는 당시 아나키스트인 金華山에게 비판의 빌미를 주게 된다. 따라서 김기진은 문학예술의 계급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형식주의적 오류에 빠지게 되고, 박영희는 문학예술의 당파성에 대한 기계적 이해로 정치주의적 오류에 빠지게 된다.

'내용·형식 논쟁'은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문학원론에 대한 논쟁이었다. 그러나 이론적인 체계가 서있지 못했고, 타국 이론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이론 적용에 대한 능력 부족으로 말미암아 본래 의도에서 빗나갔다. 그러나 문학예술의 당파성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문예운동의 방향전환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수순을 열었다는 점에서 '내용·형식 논쟁'은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내용·형식 논쟁'이 한창 일 때, 아나키스트 계열의 김화산이 「계급예술론의 신전개」(조선지광, 1927. 3)에서 문학의 독자성 강조, 문학예술의 당파성을 주장하는 카프 논자를 특히 박영희에 대해 반박했다. 김화산은 박영희의 김기진을 공격하면서 문학예술의 당파성을 기계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한 사실을 반박했던 것이다. 김화산은 문학의 당파성을 주장하는 것은 문학예술의 힘을 抽象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

글 실는 차례

- Ⅰ. 들어가면서
- Ⅱ. 조직개관
 - 1) 燎郡社
 - 2) PASKYULA
 - 3) KAPF
- Ⅲ. 프로비판의 전개양상
 - 1) 方向轉換論爭
 - 2) 大衆化論爭
 - 3) 農民文學論爭
 - 4) 同伴者文學論爭
 - 5) 리얼리즘論爭
- Ⅳ. 마치면서

문에 이는 마땅히 비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카프가 전면적인 비판을 했다. 당시 카프 서기장 尹基鼎을 비롯하여, 한설야·입화·조종근 등이 전면적인 공격의 포문을 연 것이었다. 김화산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은 韓雪野의 「무산론예가의 입장에서」(동아일보, 1927. 4. 15~27)이다. 한설야는 이 글에서 문학예술의 당파성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형상을 통한 현실의 반영이라는 문학예술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며 창작의 자유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런 아나키스트의 비판이 있기에 원인이 박영희의 당파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윤기정이 김화산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문학예술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에 있다는 것까지 예리하게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입화가 「착각적 문예론의 극복」(조선일보, 1927. 7. 19~23)을 통해 김화산을 재비판하는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아나키스트와의 논쟁은 마무리된다. 그러나 이 논쟁을 통하여 카프내부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고 주장되던 문학예술의 당파성 문제가 전면으로 부상하게 되고, 카프 성원들도 문학예술의 특수성이나 창작의 자유와 당파성을 결코 배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렵게

알게 된다.

아나키스트와 논쟁이 진행되고 있을 때 박영희는 김기진과 의 논쟁에서 주장했던 靑野季吉의 이론을 수용하여 문예운동의 방향전환을 출몰 주장했다. 그는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일선적 투쟁에서 전선적 투쟁으로의 방향전환을 주장했던 것이다. 결국 그는 目的意識을 강조하여 카프의 방향전환을 역설, 강조했던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카프는 새로운 주도세력인 <第三戰線派>를 맞아 들이게 되고, 아나키스트와 민족주의 계열을 제명하여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통일된 문학운동단체로 자기정립을 하게 된다.

방향전환 논쟁에서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다른 논쟁과는 달리 구체적 작품을 둘러싸고 벌어진 실제 비평이 약간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大衆化 論爭

方向轉換과 함께 카프 내부에 또다시 떠오른 문제 중의 하나는 문학예술의 大衆化 問題이다. 당파성을 지닌 문학작품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대중들이 읽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작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다. 이렇게 볼 때 문학예술의 대중화 문제는 프로예술운동에서 가장 중심적인 문제다. 대중화 문제를 카프내에서 제일 먼저 제기한 사람은 한설야이다. 그는 「1928년의 대중의 문예관계는 어떻게 진전될까」(조선지광, 1928. 1)에서 의식있는 勞農大衆 뿐만 아니라 의식화되지 않은 노동대중들이 요구하는 문예 또한 중요하므로 문학예술은 그들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민족문학운동은 현재 의식화되지 않은 노동대중들의 현재적 취미에 영합하는 대중적 추수주의로 빠져서는 안된다고 했다.

1928년 이후 '공장으로 농촌으로'라는 구호와 함께 카프 내에서 간헐적으로 문학예술의 대중화가 논의되었다. 이 대중

화론이 중심적인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김기진이 문학예술의 대중화에 대한 일련의 글들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김기진은 「문예시대관-통속소설소고」(조선일보, 1928. 11. 9~20)에서 작품을 '통속소설'과 '통속소설이 아닌 소설'이라는 두 개의 것으로 구분하였다. '통속소설'이란 보통 독자 즉 부인, 소학생, 불교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노년, 청년, 농민대중을 그 독자대중으로 삼는 것이고, '통속소설 아닌 소설'이란 교양 있는 독자 즉 각성한 노동자, 진취적 학생, 실업청년, 투쟁적인텔리층을 그 독자대중으로 삼는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구분한 그는 객관적 정세의 불리, 특히 검열이 강화되어 발표가 힘들 때는 통속소설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진은 프롤레타리아문학과 대중문학과의 차이가 분명해지자 「대중소설론」(동아일보, 1929. 4. 14~20)을 발표, 새롭게 소설의 대중화를 주장하게 된다. 그는 대중소설을 "단순히 대중의 향락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단계의 주인공의 임무"를 다하도록 대중을 끌어올리고 결정하게 하는 작품을 하는 소설이라 했다.

독자대중에 따라 프롤레타리아문학과 대중문학을 나누어 생각하는 김기진의 대중화론은 소설에 뿐만 아니라 시에도 적용된다. 그는 「단편 서사시의 길로」(문예공론, 1929. 5)에서 朴英熙의 시 「우리 오빠와 화로」를 가리켜 단편 서사시로 부르면서 프롤레타리아시가 의 모범으로 평가하였다. 그가 말하는 「단편서사시」는 1) 그 소재가 '사건적 소설적' 일 것, 2) 문장이 소설같이 문해하는 안되지만 심하게 "연마조각하여 아로새길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주시하게 된다.

첫째, 단편서사시가 프로예술의 참된 방향성의 모색이면 시 대중화론을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

둘째, 단편서사시의 이론이 가능해진 것은 입화라는 존재와 그의 특출한 작품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

김기진이 「변증법적 사실주의」에서 기적 '출항전적' 수중에 맺은 이유중 하나가 프로작품 가운데 그와 흡사한 작품이 실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그의 단편서사시 이론이 어느정도 타당성을 인정받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김기진의 예술대중화론의 특징은 현존하는 대중의 취미수준에 관심을 돌림으로써 대단히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의 현실 분석은 현실을 피상적으로 파악, 이야기책을 읽는 대중의 근본동기가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의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 出入禁止 대학

美 通 源 영문과교수·詩人

우연히 컬럼비아大學을 지나가다

정문쪽을 쳐다보았을 때

진장한 수위가 버티어 섰지만

대학의 看板은 찾을 길 없고

다만 <大學構內에 개 出入禁止>라는

금속판 표지가 주의를 끌었다.

내채 이 게 뭘지

분명치는 않으나 역시 美國의이다.

하지만 나는 개가 아니다

개가 아니다를 증명거리며

캠퍼스를 한 바퀴 돌고

後門에 이르렀을 때

여기에도 개 출입을 금하는

문패를 校門 기둥에 달아 놓고

계북의 사나이가 지키고 있었다.

때마침 지나치는

黃人種을 한 사람 붙들어 세웠는데

그는 우리의 코리언이 아니고

유감스럽게도 日本의 유학생이었다.

어떻게 黑白이 판치는 외지에서

요행스럽게 반가운 피부색을 만나

記念攝影이나 함께 하자 권했으나

사람 무안하게

한 마디로 바쁘다고 거절하며

마치 강아지새끼처럼

이리저리 졸래졸래 뛰어가 버렸다.

호의적 해석을 붙인다면

아마도 바쁜 공부에 쫓겨

한 장의 사진에도 時間이 여유없는

일견 패색하면서

놀랍고 嘉尚스러운 녀석이었다.

어딘가 씩씩한 기분으로 돌아서서

컬럼비아대학을 떠나오며 생각해 보았다.

과연 大學이란 것이

이 대학의 경우처럼

개같은 것을 금지하는 캠퍼스라면

우리가 날마다 개탄하는 문제

이론과 非知性과 反文明이

소란스레 난무하며 혼란을 빚고

캠퍼스를 荒廢化시키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것들이

대체 용납될 수 있는 것인가 하고

울적한 심정에 젖지 않을 수 없었다.

단순히 흥미충족을 위해 심심 방향으로 대중화론을 전개하는 파장을 구하는데 있다고 하여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대중의 오락 취미에 영합하는 <계속>



○...紀憂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탐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도민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교수님들께서 성명서를 발표했다는데.

알면 실천하라고 가르치시는 교수님들께서 설마 단순한 성명서 한 장 내밀고 할바 다했다고 지역문제에 손을 댈지려는 것은 아닐테지요?

이 아라지 이것이 기우이기를 바라며 간언하오니, 탐동이 환수의 대단인 병문전 복귀의 허구성과 환경영향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학문적인 연구내용을 통해, 탐동투쟁에 힘쓰는 청년학도들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주요.

○...아불성심
세계적으로 알려진 우리학교 핸드볼 팀이 이번 제주도에서 경기불가했는데, 후보가 미약한 탓으로 우리학교를 응원하는 사람은 모두 어린이들이며, 더구나 출전하지 않은 선수들 몇몇이 모여 원석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처담하기까지.

요새에는 영화상영도 총학생회에서

제때에 홍보를 하는데 우리학교 선수들이 뛰는 시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니 응원할 못해 참정 홍보만이 라도 해주면 어떨까?

○...논론 장님이 돼서야
알면 약이되고 득이되는 사실들이 우리학교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여부나 위치를 몰라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그 예로 언어자습실 (어학연구소내 위치)은 소정의 사용절차만 밟으면 도서관을 출입하듯 드나들며 외국어 공부

紀憂와 語不成說

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사용인이 많지않아.

이 원인을 홍보의 미약성으로 느낀 아라지 한파더, 좋은 시설이 있으면 학교당국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줘야 할 것이며, 아라학우를 또한 필요한 시설이 없다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아오.

○...無用之物이 돼서야
공들이며 애써 만들어 놓은 주차금지 표지판이 쓸모없이 나뒹굴고 있는데.

사연인즉, 학생회관과 본관에 세워진 「주차금지」 표지판이 오른쪽에 있다가

몇시간후엔 왼쪽으로 가있는가 하면 사라졌다가는 돌연 나타나고, 어떤 물자 한 자가용은 그 앞에 버섯이 주차하기 도.

표지판에서 몇미터 떨어져 주차, 명분을 세우려는 약삭빠른 운전자들도 운전자들이지만 학교당국에서도 필요가 있어 만든 표지판 운용을 제대로 해야.

○...문점박대
「도둑이 재발 저한다」는 속담을 실감케 하는 일이 속출.

다들아닌, 본사 기자들이 취재하러 찾아가는 행정부서중 몇몇 부서에서 취재에 비협조적이거나 자신들의 업무마저도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있는 사례가 그것.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못하고, 은폐하려고만 하니, 어찌하면 좋을지.

○...좋은게 좋은 거
노대통령 퇴진투쟁에 이어 말로만 들던 밀실의교로인해 우리 도지사 퇴진투쟁이 가열차다는데.

아라지 알아보니, 병문전 복귀공사로 탐동매립이이환수를 대신하였고, 게다가 그것이 도민의 의사를 강그리 무시한 것이라.

도지사님, 단독합의 무효화 선언하시든지, 자리 좀 비켜주시든지 양자택일함이 옳은 줄로 아뢰오.

큰 공부

고요한 곳에 천지가 크고
한가한 가운데 일일이 길다.
만약에 제 분수에 편안할 양이면
도대체 유별난 생각보다 나은 법.

책상에 의지한 공부가 큰 것이지
창을 휘두르는 사업이야 낮은 거라네
봄가을에 흥을 타고 노닐어야 하기에
나갈 적엔 작은 수레와 아이를 쓰노라.

세상에 대한 일이 없건만
천하에는 영웅의 계주가 있다네.
다만 사람 얻기 어려울까 걱정이지
도가 넘지 못하다 어찌 근심하리오.

靜處乾坤大
閒中日月長
若能安得分
都勝別思量

隨工夫大
揮戈事業卑
春秋賴乘興
出用小車兒

世間無大事
天下有雄才
惟恐人難得
寧憂道未恢

—이익의 「성오사설」 중에서—

대우가 있습니다.

